

상위권 겨냥 광주FC “포항 원정 설욕 지켜보라”

18일 오후 4시30분 포항스틸야드
3월 패배 지역비하논란 되잖을 기회
포항 이호재 경계 헤이스 득점 기대

광주FC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5 14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올시즌 무패행진 제동과 개막후 첫 패배를 안긴 포항과의 시즌 두번째 경기다.

광주는 지난 3월22일 포항과 시즌 첫 맞대결에서 2-3으로 역전패했다. 당시 조성권의 선제골에도 전반전을 1-1로 마쳤고 후반 실점후 헤이스의 헤더로 다시 2-2 동점을 만들었으나 다시 역전골을 허용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해도 포항에 연패를 기록하다 9월13일 2-1로 승리하며 포항전 시즌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통산전적은 3승8무19패, 최근 10경기 전적

도 3승2무5패로 광주가 열세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확실하다. 현재 광주와 포항은 나란히 13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5승 4무 4패로 승점 19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승점 20점의 고지를 넘어서며 선두 그룹을 맹렬하게 쫓을 수 있다. 반면 패배하는 팀의 경우 바짝 뒤따라오는 중하위권 그룹에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 시즌 첫 경기에서 불거졌던 포항 일부 응원단의 지역 비하 논란도 승리로 설욕하고픈 마음이다.

전력 상황에서 광주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양 팀 모두 주중 코리아컵 일정을 치렀다. 결과는 상반됐다. 광주는 수원FC를 잡고 8강 진출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포항은 김포FC전에서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더욱이 광주는 코리아컵에서 리그 일정을 고려해 과감한 로테이션을 택했다. 이정호 감독은 직전 전북현대와의 경기를 소화한 11명의 선수를 모두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며 체력 안배에 성공했다. 포항의 경우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코리아컵 경기에 출전했다. 분위기와 체력 두 가지 측면에서 광주가 우위에 있어 이날 맞대결은 해볼만하다는 평가다.

경계 대상은 득점왕 경쟁에 합류한 스트라이커 이호재다.

이호재는 2021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포항에 만 몸담아 온 5년 차 스트라이커다. 이호재는 지난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며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았는데, 시즌 막판 발등 부상으로 이탈하며 27경기 9골 5도움을 기록했다. 올해 이호재는 더욱 탄탄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 주며 12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 중이고, 최다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는 주민규와 전진우(각 8골) 뒤를 바짝 추격하며 득점왕 경쟁에 합류했다.

광주는 팀내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헤이스(4골)를 비롯해 아사니(3골), 변준수(2도움) 등이 포항을 상대로 설욕전에 나설 전망이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승부차기 끝 코리아컵 8강 진출

GK 노희동 선방 수원FC 제압

이번은 없었다. K리그1,2부팀들이 코리아컵 8강에 진출했다. 강원, 전북, 김포, 대구, 서울, 울산, 부천, 광주다. 광주FC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8강에 합류했다.

광주는 지난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수원FC와의 16강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골키퍼 노희동의 선방이 연장전까지 이어진 혈투의 마지막을 결정지었다. 노희동은 승부차

기에서 상대 슈팅을 두 차례 막아내면서 팀을 8강으로 이끌었다.

경기 초반부터 광주는 기세를 올렸다. 전반 3분 가브리엘의 볼과 이후 컷백 패스를 받은 홍용준이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다. 상대 골키퍼 황재운의 선방에 막힌 것이 아쉬웠다.

후반 들어 수원FC의 공세가 이어졌고 광주는 강희수, 문민서를 투입하며 맞섰다. 후반 18분 오프키르에게 실점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광주는 위기를 넘겼다. 후반 24분에는 가브리엘이 골망을 갈랐으나 역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광주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29분 골키퍼 노희동의 퐁패스를 신장 무가 이어받아 전진했고 황재환의 패스를 문민서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수원 김도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향했다.

연장전에서도 1-1의 균형을 끝내 깨지지 않았고,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갈렸다. 양 팀 모두 두 번째 키커가 실축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마지막 키커로 나선 수원FC 아반다의 슈팅을 골키퍼 노희동이 막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조혜원 기자

“현장 목소리 경청·소통…발로 뛰며 연맹 운영할 것”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 취임

광주시육상연맹 김민주 제4대 회장이 지난 14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은 광주 육상인을 비롯해 전광주광주시체육회장, 심재용 광주시육상연맹 고문, 유만근 광주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내빈 소개, 회장 취임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제일고와 목포대학교를 졸업한 김 회장은 명주태양광발전소를 설립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명주상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유도 2단의 실력자이며 광주 생활체육 명주파이터스 야구단 구단주로도 활동중이다.

김민주 회장은 “광주육상은 지역 체육의 자부심이었으며, 지도자와 선수들의 헌신과 믿음이 오늘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그 전통을 이어갈 수



광주시육상연맹 김민주 제4대 회장 취임식이 지난 14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렸다. 조혜원 기자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육상의 발전과 선수층 확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다. 또한 화합과 소통, 혁신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연맹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함께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력이 반

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훈련 환경 조성, 둘째, 유소년부터 엘리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육성 시스템 체계화, 셋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를 통한 육상 대중화다.

김 회장은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 육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영광서 열전 돌입

내일까지 9개 종목 2300명 경쟁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5일 영광서 개막, 이틀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엔 도내 22개 시·군과 경북 생활체육교류단 등 2,300여 어르신 선수단이 참가해 경쟁과 화합의 장을 펼친다.

대축전은 이날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체조, 소프트테니스, 산악, 궁도, 탁구, 파크골프 등 9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특히 경북도 생활체육교류단이 80여명 규모로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등 6개 종목에서 영호남 간 우의와 교류를 다진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영광 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어르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남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노후와 지역 간 화합의 기틀을 다

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FC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이날 헤이스를 앞세워 설욕전에 나선다. 광주FC 제공

KIA 김태균·최원준·김호령 1군 등록

이범호 감독 “수비 보강 필요”

KIA 타이거즈가 베테랑 포수 김태균을 포함해 외야수 최원준, 김호령을 1군에 등록하며 수비 강화에 나섰다.

KIA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태균, 최원준, 김호령을 1군에 등록했다. 엔트리 말소는 박재현, 한승택, 정해원이다.

이범호 감독은 “수비에서 최소 실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갔던 김태균과 최원준을 올렸다. 김호령 역시 수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풀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승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

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퓨처스리그에서 준비 중인 젊은 선수들도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은 지난 5일 1군에서 제외된 뒤 열흘만의 복귀다. 올 시즌 25경기에서 타율 0.208, 5타점, OPS 0.578을 기록 중인 김태균은 팀 내 주전 포수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이날 선발 포수는 한준수가 맡았다. 이 감독은 “김태균은 네일이 선발 등판하는 경기에서 김태균과 호흡을 맞춰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리는 한준수와 할때 좋은 피칭을 보였다. 나군안은 좌타자에게 약한 면이 있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혜원 기자